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예배 후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 예결산 승인 및 감사 선출

- 2017 세광교회 단기선교

일시: 2017년 2월 20일-24일 (월-금)

장소: 혼두라스 캠퍼라 지역의 라플로레스 (최문재 선교사)

사역: 의료 및 전도, 어린이 사역

여름의류를 Donation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부 광고

Sight and Sound Trip for Sunday School and Youth Group

일시: 3월 25일 (토)

입장료: Adult \$85

Children \$50

Kids age(3-12) \$31

2017년 1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윤정호 집사/시편 15편

이번 주 친교: 서현숙/최경자 집사

다음 주 친교: 김현정/오영숙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1월 22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장(통 21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35장(통 50장)
다함께
“큰 영화로신 주”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27:1, 4-9

오영숙 집사 찬양(Choir) “주님
품에”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계(Rev.) 4:1-11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1. 15. 주일설교 요약

나에게서 사서 (계 3:14-22)

지난 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 주는 진단과 격려였다면 이번 주는 구체적인 치료계획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능력있는 분의 진실한 진단은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더럽고 눈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분의 진단이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삶에 들어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니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이기 원합니다.

구체적인 치료계획은 주님께 진짜 부요함과 의로움과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세상의 부가 아닌 영적인 부,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시 4:7)을 누리며 사는 참 부요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님께서 허락한 물질의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썩어질 금에는 손해가 되지만 불로 연단한 영원한 부요함을 쌓는 일입니다. 물질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사슬을 끊는 능력을 훈련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더욱 민감하고 자유롭게 누리게 합니다. 주님을 위해 손해 보고, 희생하여 주를 섬기고, 구제함으로 내 것을 흘리는 일이 오히려 부요함을 누리는 훈련인 것입니다.

흰 옷은 회개와 성화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흰 옷은 주의 보혈로 씻은 옷입니다(7:14).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났으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가 씻겼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신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회개와 사죄와 용서가 우리의 의입니다. 또한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19:8). 의롭다 칭해주신 은혜에 합당하도록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의로운 행위도 아니고, 회칠한 무덤처럼 속을 감추기 위한 위선의 옷도 아니고, 손익 계산에 따라 서로 인정해주는 인지성정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보혈로 입혀주신 칭의의 흰 옷, 성령과 함께 이뤄가는 성화의 흰 옷입니다. 의롭다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칭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이기심과 교만의 렌즈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 자신을 직면할 수 있고 상황과 세상과 이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어젠다를 이루려고 머리를 쓰고, 연구하고, 살피는 것으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영생을 바라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을 건디고 바라며 참고 믿는” 사랑도할 수 없습니다. 한없이 은혜로우신 주님께 판단을 맡기고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편지는 일곱 편지 중 가장 영광스런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과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 하십니다. 주님도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롭다 인정은 커녕 조롱받고 경외받아 십자가 형을 받으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아버지 뜻을 물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아버지께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빌 2:6-11).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자기를 비우신 주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함과 진리와 의로움과 지혜를 구했을 때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미련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누구든지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를 그 영광스런 자리까지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시는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십시오. 주 앞에 감추지 말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거룩을 위해 싸우되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이 나의 지혜되도록 겸손히 마음을 열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부, 나의 빛, 나의 의, 나의 자랑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 주일(1/29) 설교: 이기신 어린 양 (계 5:1-14)